



청소년이 교회의 미래다

청소년 집중사역 선포와 예수친구사역 서약식

청소년 집중사역 선포식

지난 8월 31일 주일 예배시간에 뜻 깊은 행사 하나가 펼쳐졌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집중사역 선포식이 열린 것이다. 이 선포식에 이어, 집중사역 프로그램중의 하나인 청소년 예수친구사역 서약식도 진행되었다.

이날의 행사는 박원호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 뒤 문은영 목사의 청소년 집중 사역의 의의와 프로그램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청소년 집중 사역에 대한 영상이 소개되었고, 검은색 단복과 청바지로 의상을 통일한 학생

24명, 부모 24명, 교사 12명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 앞에서 예수친구사역에 대한 서약식을 가지면서 마무리되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문은영 목사는 “청소년 집중사역의 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로 성숙해갈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커리큘럼

을 개발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 자료실, 상담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소년 힐링캠프, 영성캠프, 가족 회복 프로그램과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국제 청소년 교육 선교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와 부모 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양육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하나님 나라 이를 미래의 동량

교사 대학이나 교사 재교육 등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들 자신이 섬김과 봉사

를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문은영 목사는 “청소년 집중사역의 핵심인 예수친구사역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인가에 관심을 두며, 지식 전달이 아니라 ‘활동’을 중심으로 전인적 교육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교 청소년을 양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특히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문 목사는 힘주어 강조했다.

함글함글

 2014년 특집 I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희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나의 비애를 아시리요

겹겹이 막아서는 바위, 돌길에도
초월의 힘으로 다가오는 당신

속아주고 살아온 뒤안길
황량한 그 길을 다시는 걷지 않으리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나는 서럽지 않으리다

나는 약해지지 않으리다
나는 결코 자포 하지 않으리다

내가 의지, 신뢰하고 살아갈 당신
내 가슴에 진실의 뿌리 새로이 뻗으면서

눈물이 젖어든 가슴에
아픔으로 지새우는 밤이 지나가도
나는 애닦지 않으리다.

가시밭을 지나가는 여정 속에
삶의 번민이 파도쳐 온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다

나는 고독의 벌판을 지나
희망이 밀려오는 당신 트랙에서
신천신지의 행복의 동산을
당신과 함께 가꾸어 가리다.

당신이 쓰다듬는 손길에
슬픈 안개가 걷히고
청명한 빛이 탐스럽게 비취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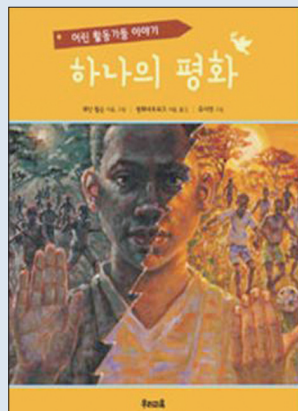
당신이 사랑의 손짓으로
평화의 바람을 알게 하시니
기쁨의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드보라 은퇴권사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

〈하나의 평화〉

재닛 윌슨 지음, 평화네트워크 옮김
우리교육, 2013



이 책에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실천한 어린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계 분쟁 지도로 시작하는 이 책은, 어린이들이 평화를 이루는 여러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어른들만이 아닌, 어린이들도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분쟁과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린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어떻게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평화를 위한 작은 안내서입니다.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64

和睦祭 (화목제 peace offering)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은 無酵餅(무교병)과 기름 바른 無酵煎餅(무교전병)과 고운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有酵餅(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레위기 7:12~13)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1. 화목(reconciliation) : 원어의 뜻은 “덮어주다”이니 곧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만족되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진노를 풀어드린다는 뜻이다. 화목이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속죄가 필요한데 짐승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졌다.

2. 화목제(peace offering) :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화친을 위해 동물 희생을 드린 제사.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흠 없는 짐승을 잡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아야했다. 그 피를 제단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콩팥 간 등을 제단에서 불사르도록 하였다. 이렇게 화제로 드리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 하였다. 국가적 경축일이거나 칠칠절, 제사장 위임식에 공적인 화목제가 드려졌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和(화목할 화): “곡식, 쌀”을 의미하는 禾(벼 화)에 “말하다, 먹는

다”의 뜻이 있는 口(입 구)가 결합되었으므로 “벼를 수확하여 함께 먹으니 화목하다”가 된다.

★睦(화목할 목): “본다”는 의미의 目(눈 목)과 “아래로 굽은 모양(ㄷ)”의 耑(언 덕 룩)으로 구성되어 “눈 꼬리가 언덕처럼 처지도록 웃으며 바라보니 화목하다”로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먹을 것이 있고 서로 웃으며 바라보면 당연히 화목하지 않겠는가?

★祭(제사 제): ‘고기’를 상징하는 肉(월육달 월, 고기 육, 몸 육)과 ‘손’을 의미하는 又(또 우)와 ‘제사 그릇이나 神(신)’을 뜻하는 示(보 일 시)를 결합하여 ‘고기를 손으로 장만하여 제기에 올리고 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줄함줄

섬기는 손 10



아직 컴컴한 주일 새벽
성전 근처에서
전날 낯선 손님들 버린
담배꽂초와 버려진 양심 쥌는
섬김의 손.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이승원 안수집사 (010-9089-8624)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함줄함줄

로템나무

크리스천이 빚을 지고 살아서야

‘돈’문제에 부딪친 크리스천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고 하며 당황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경우를 본다. 수년 전의 일이다.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어느 목사님께 한 부부 집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는 망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라고 하며 자기들은 주일성수 잘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여왔는데 집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묻자 어느 친구에게 보증을 서 준 적이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갑자기 자기들 집에 은행의 가압류가 들어오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에 넣겠다는 이야기였다. 목사님은 그

들에게 “성경에 빚 보증 서지 말라고 한 걸 몰랐어요?(잠 11:15)”하니 “목사님, 언제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신 적이 있으세요?”라는 항의가 돌아왔다고 한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보증을 선 후의 대위변제율이 75%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네 건의 보증 중 세 건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보증사고뿐만 아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김없이 “개인 기업 파산 회생” 광고가 눈에 들어온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돈을 빌리고 못 갚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돈을 빌릴까? 우선 생계형 채무가 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보증 채무 말고도 과소비, 탐욕, 이웃과 비

교하기, 미디어의 유혹,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돈을 빌리고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다 보면 부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청년들이 취업난의 수렁 속에서도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대부업체의 고율의 원리금을 돌려 막는 다거나, 심지어 어느 교회의 경우 본당이나 교육관 건축 시의 과도한 용자금 못 갚고 넘어지는 경우를 보는데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금년 초에 한국의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60%에 이르는 것으로 IMF는 이를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금융뇌관이 될 것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부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 믿는 자라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 가정불화, 파산, 이혼, 창의력 저하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축복을 받

아들이는 통로를 닫아 걸 수밖에 없다.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 13:8)고 하였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고 하며 부채는 저주와 같다고 하였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잠 22:26-27)라고 경고하고 있다. 얼마나 심각하고 현실적인 말씀인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후 6:8) 이 말씀은 크리스천이 빚에서 자유하고 주신 것으로 자족할 줄을 알며 참된 재정적 자유함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이 축복된 삶의 길임을 말하고 있다.

왕진우 집사

하나님 말씀 먹고 쑥쑥! 예수님과 함께 사랑 풍풍!

14기 아기정원 입학식



2014년 가을학기 14기 아기정원이 9월 18일(목) 오전 10시에 입학식을 가졌다. 아기정원은 18개월부터 40개월까지 유아들과 엄마들이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배우고 활동하는 주중 신앙 교육 프로그램이다. 14기 아기정원은 36명의 아이들과 18명의 스터프들이 참여하여 11주 동안 진행되며 12월 11일에 수료식을 갖는다. 유아들은 말씀과 연계된 놀이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다. 엄마들은 말씀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배우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를 이해하며 사랑의 관계를 배워가는 곳이다. 14기 아기정원에서는 “예수님과 친구해요!”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 말씀 먹고 쑥쑥! 예수님과 함께 사랑 풍풍!”이라는 재미있는 표어가 제시되었다.

함글함글

정신학원에 있던 한국기독교의 역사 6

중명전

위키백과에 덕수궁 중명전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중명전은 원래 정동 지역 서양 선교사들의 거주지에 속해 있다가, 1897년 덕수궁이 확장되면서 궁궐로 편입되었다. 이때 당호를 수옥헌이라 짓고, 주로 황실 도서관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1901년 화재로 전소된 후 재건되어 지금과 같은 2층 벽돌 건물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건물의 설계는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A.I. Sabatin)이 하였다.”

이 ‘서양 선교사들의 거주지’에 속



장로회 여학교가 있던 자리에 1901년 세워진 덕수궁 중명전.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하였다.



2010년 복원된 중명전

한 자리에 위치한 중명전은 바로 장로회 여학교 제2교사(校舍)가 있던 자리이다.

1890년 4월부터 장로회 여학교의 교장을 도티(Susan Doty)가 맡게 된다.

그녀는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했다. 그 이유를 미북장로회 선교본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알렌이 거주하던 집으로, 학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이 아닙니다. 감리회 학교는 인쇄소와 집, 여성병원과 인접한 남성병원이 함께 있어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1892.12.12. 도티)

수차례의 요구 끝에 학교는 1895년

10월 20일 종로구 연지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 자리에 중명전이 들어선 것이다.

이 중명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며, 1907년 고종이 헤이그 특사로 이준 등을 파견한 곳이기도 하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감

코마인터뷰 | 노구에 새벽부터 봉사하는 김영중 은퇴안수집사

청소하며 섬길때 느끼는 깊은 은혜



주일 이른 새벽에 교회에 왔던 분들은 안다. 새벽마다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전날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 가운데 누군가 무심히 버린 담배꽂이나 휴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 일흔이 넘은 연세에 흥안이 아름답다. 그이가 새벽에 와서 하는 일은 그 뿐만이 아니다. 1부 찬양대에 봉

사하는 최명숙 은퇴권사와 함께 새벽에 교회에 오면, 우선 지하실기 소독함에 있는 커피잔을 챙겨, 1층 로비에 배치한다. 담배꽂초와 휴지를 줍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1부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주차 봉사를 한다. 가을이 되면 정원에 꽃을 심는다.

주님의교회에 출석한 것은 1991년 강남YMCA에서 예배를 드릴 무렵이다. 그때도 주차봉사를 했다. 전북 익산에서 사업을 할 때였지만, 토요일에는 서울에 와서 성전 청소를 했다. 1998년 잠실에 새로 교회가 완공되어 진공청소기를 메고 청소할 때, 정말 은혜로웠다. 그이가 심은 것은, 그러니 꽃 만이 아니다.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 안에는 분명 그이의 땀이 있을 터이다.

함글함글

 교회 단신

2014 청년부 베트남 비전트립



청년부에서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극빈층이 많은 남부 빈롱 지역을 방문하여 사랑의 집짓기를 통해 두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제51기 무지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9월 11일 제 51기 무지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심화교육이 시작되었다. 주님의교회에서도 5명이 신청하여, 호스피스 봉사의 험난하지만 은혜로운 길을 다졌다.

 알림

베트남어 초급반 5기 시작

9월 13일 오후 5시 정신학교 교육관에서 베트남어 초급반 5기가 시작되었다. 금번 5기는 청운대 이강우 교수의 재능기부로서 무료로 강의가 진행되며 3개월의 과정이 될 예정이다. 5기는 우리교회 다문화센터 교사들 포함하여 교인 30여명이 수강하고 있는데 향후 다문화 가정의 베트남인들도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함글함글



 교회사역일정

10.3(금): 개천절

10.5(주): 성찬주일, 공동의회,
1차 항존직 선거

10.6(월): 정기당회

10.9(목): 한글날

10.10(금): 금요기도회

10.12(주): 2차 항존직 선거

10.15(수): 3/4분기 제직회

새로 시작한 12단계 성경공부



9월 3일 12단계 성경공부의 1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교역자 사모들이 직접 준비한 김밥과 주먹밥이 제공되어, 저녁도 거른 채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로 온 많은 성도들의 허기를 채워 주었다. 9월 17일 현재, 수요일반 약 1,300명, 인터넷반까지 합치면 약 1,700명이 등록했다.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да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